

# 영암군민속씨름단, 단체전·금강·백두장사 등극 “최강단” 우뚝

정읍 민속씨름리그 왕중왕전 단체전 우승

윤성민 백두장사·최정만 금강장사 등극해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정읍 민속씨름리그 왕중왕전'에서 백두장사와 금강장사 등극,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면서 올해 마지막 씨름대회를 휩쓸어 씨름강군으로서 영암군의 명성을 다시 한번 크게 높였다.

먼저 16일에 펼쳐진 금강장사 결정전에 최정만 선수는 4강에서 수원시

청 문형석 선수를 2대 1로 물리치고, 장사결정전에서 금강급 라이벌 수원시청 이승호 선수를 3대2로 극적으로 승리하며 올해 3관왕 달성과 개인통산 13번째 금강장사에 등극하였다.

대회 마지막날인 19일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의 결경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백두장사 결정전에 윤성민 선수는 4강에서 영월군청 임진원 선수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장사결정전에서 양

평군청 박정석 선수를 3대 1로 가뭇게 승리하며 생애 첫 장사에 오르는 큰 기쁨을 누렸고 열린 단체전 최강단 결정전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대회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민속리그 최강단 결정전은 15년만에 부활한 단체전 최강자를 뽑는 자리였다. 전날 18일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울산 동구청에 아쉽게 1경기를 내줬지만, 이날 열린 2경기와 3경기에서는 팀스코어 4대1, 4대2로 울산 동구청을 물리치며 왕중왕전 최강단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2017년 창단 이후 이번 대회까지 총 31회 장사 배출,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

전 우승 3회로 대한민국 씨름판의 절대강자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은 각종 민속씨름대회에 참가와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영암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등 군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올 한해 역사적인 성과보여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대한민국 씨름과 영암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19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드시즌제 2020 정읍 민속씨름리그 왕중왕전' 단체전 최강단에 등극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김경기(오른쪽) 대한씨름협회 회장 직무대행, 조상중(왼쪽) 정읍시의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씨름협회 제공)

## 고진영, LPGA 시즌 최종전 우승...상금왕 2연패

준우승 김세영, 올해의 선수 등극



고진영이 1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75회 US여자오픈 2라운드 16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세계 1위 고진영은 중간합계 1오버파로 박인비, 최혜진 등과 함께 공동 29로 올라왔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고진영은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쳐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친

고진영은 2위 그룹을 크게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통산 7번째 우승을 신고했다.

우승상금으로 110만 달러(한화 약 12억원)를 받은 고진영은 시즌 총상금 166만7925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상금왕을 거머쥐었다.

고진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투어 출

전을 미루다가 11월에 출전을 시작했다. 불과 4개 대회에 참가해 상금왕, CME 글로벌 레이스 챔피언에 등극했다.

11번홀까지 1타밖에 줄이지 못했던 고진영은 12, 13, 14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16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은 고진영은 18번홀에서도 버디 퍼트를 잡아내며 무종의미를 거뒀다.

대회 2연패를 노렸던 김세영(27)과 하나 그린(호주)은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해 공동 2위에 올랐다.

김세영은 3라운드에서 고진영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랐다. 그러나 마지막 날 버디 3개, 보기 3개를 쳐 타수를 줄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김세영은 박인비(32)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에 올랐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 상금왕 랭킹 부문에서 1위를 달렸던 박인비는 대회 내내 중위권에 머물러 타이틀을 모두 후배들에 빼앗겼다. 박인비는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해 공동 35위에 그쳤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5위에 올랐고, 유소연(30)은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해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 KT 허훈, 올스타 팬 투표 중간 선두...2년 연속 1위 도전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 (사진 = KBL 제공)

2위 KCC 송교창·3위 KT 양홍석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25)이 2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넘보고 있다.

KBL은 11일부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2020~2021 현대 모비스 프농구 올스타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 허훈이 21일 오전 9시30분 기준 1만4220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올스타 팬 투표 1위에 오른 허훈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까지 거머쥐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허훈은 올 시즌에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14.4득점으로 국내 선수 득점 7위에 올라있고, 어시스트 부문에서 평균 7.1개로 1위를 질주 중이다.

국내 선수 득점 1위인 송교창(전주 KCC)이 1만3238표로 2위, 2018~2019 시즌 올스타 팬 투표 1위 양홍석(KT)

이 1만3222표로 3위를 달리고 있다.

허훈의 형인 허웅(원주 DB)은 1만 3217표로 4위다.

지난 시즌 올스타 팬 투표 2위를 차지한 김시래(창원 LG)가 1만2036표로 5위를 달렸다.

이외에 김낙현(인천 전자랜드·1만 1659표), 이정현(KCC·1만1384표), 김선형(서울 SK·1만820표), 캐디 라렌(LG·1만223표), 변준형(안양 KGC인삼공사·1만227표)이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시즌 올스타전 경기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KBL은 올스타 팬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대체 행사를 열기로 했다. 팬 투표는 내년 1월4일까지 진행된다.

김미희기자

## “한국 슬러거 나성범 어떤가” 시카고 매체, 캡스 영입 제안

시카고 캡스가 나성범(31) 영입에 나서야한다는 현지 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캡스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카고 매체 '캡스HQ'는 21일(한국시간) "캡스는 한국의 최고 슬러거 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캡스HQ는 "좌익수라는 확고한 포지션을 가진 나성범은 캡스에 흥미로운 옵션"이라며 "내년 시즌에도 내셔널리그에 지명타자 제도가 유지된다면 나성범을 지명타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최근 한국, 일본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캡스가 올해에는 KBO리그와 일본프로야구의 여러 스타들을 노릴 수도 있다"며 "KBO리그에서 뛰던 25세의 김하성과 일본프로야구 구니혼헤 파이타스의 유타리타면 니시카와 히루키가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나성범은 어떤가"라고 전했다.

키움 히어로즈 간판 타자이자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던 김하성은 나성범과 마찬가지로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한다. 니시카와 역시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김하성, 니시카와는 나성범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다.

나성범은 좌타 거포다. KBO리그에서 뛰는 8시즌 동안 통산 17개의 홈런을 쳤고, 통산 장타율은 0.542다. 김하성은 중장거리형 타자로, 주력도 갖추고 있다. 올 시즌 성적은 타율 0.306 30홈런 109타점 23도루 111득점이다. 발 빠른 외야수인 니시카와는 올 시즌 타율 0.306 5홈런 39타점 42도루 82득점을 기록했다.

뉴시스

## “에이스 류현진, 2021년 개막전 선발” 토론토 매체 예상

2021년에도 류현진(33)은 의심할 여지 없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다.

토론토 소식을 다루는 제이스저널은 21일(한국시간) 토론토의 내년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전망하면서 2021 시즌 개막전 선발 투수로 류현진을 예측했다.

매체는 “개막전 선발 투수는 류현진이 될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비시즌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내년 계약 2년 차에 접어든다”고 적었다.

토론토 이적 첫 해였던 2020시즌 활약도 합격점을 받았다.

제이스저널은 “류현진은 올해 토론토의 최구 투수였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도 표를 받았다. 3시즌 연속 평균자책점 2.70 이하를 기록했고, 9이닝당 9.7개의 탈삼진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는 2019시즌이 끝난 뒤 역대 구단 자유계약선수(FA) 투수 최고액을 들여 류현진을 영입했다.

류현진은 시즌 내내 에이스 역할을 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2021년에도 그의 입지는 여전히 탄탄할 전망이다.



그러나 류현진을 제외한 토론토 선발진은 불투명하다.

매체는 “류현진 이후 나머지 로테이션은 확실하지 않다. 네이트 피어슨이 2선발로 나설 수 있지만 3번째나 4번째 선발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유망주인 피어슨이 짝이 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피어슨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류현진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나머지 선발 로테이션에는 로비 레이와 토마스 해치, 테너 모어크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한편, 류현진은 LA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로 나섰다.

올해는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개막전 마운드에 올랐다.

뉴시스

## 태권도, 다시 유럽올림픽 정식종목으로

2023대회부터

태권도가 2023 유럽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유럽올림픽위원회(EOC)가 태권도를 2023년 '제3회 폴란드 크라쿠프·마워폴스카 유러피안'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태권도는 201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회 유러피안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2019년 제2회 벨라루스 민스크 유러피안에서 제외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복구시키기 위해 유럽국가들 상대로 태권도 외교를 펼쳐왔다. 지난해 재단은 폴란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NOC 위원장·사무총장 등을 만났다.

이들과 태권도 종목의 유러피안 복귀와 각국 태권도 교실 운영 협력을 논의했다. 제2회 유러피안 개최국인 벨라루스를 찾기도 했다.

정부 기관인 벨라루스 대통령 직속 행정아카데미 총장을 만나 아카데미의 태권도 교실 운영을 위해 태권도복 등을 전달했다. 제3회 유러피안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김민정기자